

현대판 고려장

버림받는 父母 많다



“모시기 싫다” 몰래 이사까지 病院 입원시킨 뒤 줄행랑도

지난 7월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한 입원실에서 78세의 할아버지가 숨져 영안실로 옮겨졌으나 사체를 인수, 위패를 마련해 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. **금기영할아버지**(京畿道議政府)가 의문은 병실에서 이렇듯 싸늘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은 그가 자식

도, 돌봐줄 이도 하나없는 무연고구의 타도인이기 때문이 아니었다. **오하리** **금씨**는 2남 4녀의 아버지로서 비록 부인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대로 다복하다고 할 수 있는 집안의 가장이었다. 부인과 사별한 뒤 **금씨**

는 議政府에 주민등록만 올라놓은 채 서울 鎭山大邱 京畿도 九里시 등에 떨어져 사는 6남매의 집을 전전 돌며 맡겨가며 지내야 했다.

그러나 **금씨**는 평소 고혈압, 당뇨병, 기관지염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려온 데다 경제적으로도, 모아놓은 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여

금씨는 평소 질병에 노환으로 딸의 집에서 소근저정을 앓았다. 둘째 딸 부부는 심한 아버지들을 업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실까지 모셔가기는 했으나 이후 자취를 감춰 다시는 병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. 더욱이 이들 부부는 병

원 입원소속카드에 쓰여져 있는 보호자 서명란에 영터리 이름을 적어내 **금씨**를 “버리겠다”는 의도를 드러냈다.

이후 **금씨**는 여성자식으로 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채 찾아오는 이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하얀 시트를 눈물로 적셔가며 의문은 투병 생활을 했다.

이러한 **금씨**가 너무도 안쓰러워 병원에선 **금씨**의 지문을 채취, 치안본부에 **금씨**의 신원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통해 **금씨** 여섯 자녀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성공했으나 이들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.

이병원 원인과 安淳一씨(42등) 직원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세 딸을 차례로 만나 **금씨**의 간병을 호소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“치료비 때 어머를 까봐 걱정돼서 찾아왔느냐” “죽으면 시체 안치올까봐 그런다” “노년병 진단 퍼부기 일쑤였다.”



서울 銅雀구 大方동 서울시립 부녀보호소에서 보호받고있는 할머니들. 보호소측은 이들중 상당수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경우라고 밝히고있다.